관계부처 합동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일시	2021. 8. 10(화) 13:00 배포
비 고	# 공동배포 : 국조실, 외교부, 식약처, 대검찰청, 관세청, 경찰청, 해양경찰청		
담당부서	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	담당자	과장 신영희, 사무관 양은진 (044-200-2379, 2382)
	외교부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	담당자	과장 이동준, 외무행정관 김정윤 (02-2100-7264, 7258)
	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, 마약관리과	담당자	과장 김일수, 사무관 임상우 (043-719-2808, 2801) 과장 김정연, 사무관 한원선 (043-719-2893, 2898)
	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·조직범죄과	담당자	과장 홍완희, 사무관 김진학 (02-3480-2290, 2292)
	관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	담당자	과장 현삼공(직무대리) (02-510-1631)
	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	담당자	과장 윤정근, 경정 이주만 (02-3150-0141, 2171)
	해양경찰청 수사국 형사과	담당자	과장 이원재, 경감 박주식 (032-835-2058, 2161)

정부, 생활속 마약류 유통 강력단속

마약류 관계기관 2021년 상반기 단속 결과 발표
마약사범 7,565명 검거, 1,138명 구속,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.6% 증가

□ 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차단을 통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.

○ 이번 단속은 **식품의약품안전처, 대검찰청, 관세청, 경찰청, 해양경찰청** 5개 기관이 실시하였습니다.

□ 올해 1.1.~6.30. 마약류 단속 실시 결과, 불법 마약류 공급·투약사범 **7,565명을 검거하여 1,138명을 구속**하였으며,

* 연도별 단속실적(명) : ('18년) 12,613 → ('19년) 16,044 → **('20.6월) 6,969** → ('20년) 18,050

○ 지난해 같은 기간 마약류 사범(6,969명)과 비교하여 올해 마약류 사범 검거는 **약 8.6% 증가**하였습니다.

○ 또한, 양귀비 29,833주 및 헤로인 1,210.26g, 필로폰(메트암페타민)·LSD·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143.2kg, 대마초 49kg을 압수하는 등 공급·유통 차단 성과가 있었습니다.

- 특히,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**약 177%**, 대마초의 경우 **약 227% 증가**하였습니다.

* 연도별 압수실적

- 향정신성의약품(kg) : ('18년) 213 → ('19년) 148 → **('20년.6월) 51.7**→ ('20년) 176
- 대마초(kg) : ('18년) 89.1 → ('19년) 81.9→ **('20년.6월) 15** → ('20년) 37.3

□ 최근 펜타닐 패치의 청소년 불법 유통 등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**19세 이하 마약류 사범***도 277명으로, 전년 동기 대비 **약 156.5% 증가**하였습니다.

* ('17년) 119 → ('18년) 143 → ('19년) 239 → **('20년.6월) 108** → ('20년) 313

○ 아울러,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(다크웹* 및 SNS)으로 마약류가 유통됨에 따라 **국제우편·특송화물**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6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**약 283% 증가**하였습니다.

* 인터넷은 사용하지만,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

** 국제우편·특송화물 마약 적발 건수: **('20년.6월) 158** → **('21년.6월) 605**

□ 한편, **환자·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·남용을 방지**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*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·남용 및 취급 보고 부적정(지연보고, 미보고)이 의심되는 병·의원 등 204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하였습니다.

*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·유통·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시스템('18.5~)

○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(오남용), 마약류 취급보고 부적정 등 규정 위반이 확인(의심)되는 병·의원 등 **117개소**와 관련 **환자 91명을 적발**하여 **행정처분** 및 **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**하였습니다.

□ 아울러, 2020년 12월에 마련한 **「2021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」**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**마약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**

○ 인터넷·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**를** 집중하여 수사하기 위해 단속 기관에 전문 수사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마약류 수사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.

*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다크웹 수사팀 확대(서울·경기남부·경남청 → 부산·인천·경기북부청 추가)

○ 또한 우리나라는 4월 20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(ECOSOC, Economic and Social Council) 관리 회의에서 2022~25년 임기 유엔 마약위원회*(CND, Commission on Narcotic Drugs) 위원국으로 당선되어 전 세계 마약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.

* 국제 마약통제 협약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 마약·범죄사무소(UNODC, UN Office on Drugs and Crime)의 정책 결정 기구

○ 아울러 세계관세기구(WCO)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난 2월 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 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,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세계 합성마약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6,700kg의 마약류를 적발하는 등 국제 마약류 유통 차단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였습니다.

* 작전 기간 중 국내에서는 입수한 해외 우범정보를 기초로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27.7kg의 마약류 적발

□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“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속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, 국내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할 예정”이라며,

○ “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유입 차단 노력을 병행하여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습니다.

참고 마약류 단속 사례

사례1 (대검찰청)

○ '21.3. 말레이시아 경찰과 공조하여, 쿠알라룸푸르에서 필로폰 밀조시설과 다국적 조직 연계 국제마약밀매단 13명 검거, 필로폰 12.2kg와 케타민 64kg 등 도매가 54억원 상당 마약류 압수

사례2 (대검찰청)

○ '21.5. 미국 마약단속국(DEA), 대만, 카자흐스탄 등 4개국 유관기관 공조로, 대만 타이베이에서 국제마약밀매조직('North Union Gang') 간부 등 10명 검거하여, 카자흐스탄發 한국 경유 대만행 필로폰 81kg 전량 압수

사례3 (관세청)

○ '21.1. 세관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, 미국에서 발송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특송화물에 대해 개장 검사를 실시하여, 해수염(수족관 용품) 안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3,752g을 적발

<특송화물 내용물>



<범칙물품 은닉상태>



사례4 (관세청)

○ '21.3. 세관 엑스레이(X-Ray) 검사를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, 라오스에서 발송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국제우편에 대해 개장 검사를 실시하여, 화장품 용기 안쪽에 은닉된 야바(YABA)* 16,423정을 적발

* 메트암페타민, 카페인, 코데인 등 각종 환각성분을 혼합하여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태국어로 '미친 약'이라는 의미

<국제우편 내용물>



<범칙물품 은닉 상태>



사례5 (경찰청)

○ ’20.6.~’21.4. 경남, 부산 등 병원에서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고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판매·투약한 10대 42명 검거

<타인 명의 처방전, 펜타닐 패치>



<흡연 도구(빨대, 은박지)>



사례6 (경찰청)

○ ’20.6.~’21.3. 해외 마약류 판매 사이트, 베트남 클럽 등에서 구한 마약류를 밀반입하고, 다크웹 및 가상자산를 이용하여 판매한 피의자 14명과 가상자산 구매대행사를 운영하며 자금 세탁한 3명, 매수·투약 149명 등 총 166명 검거

<LSD 400장>



<마약대금 현금 24,649,000원>



사례7 (해양경찰청)

○ ’21.1.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 선박 내 기관실에 은닉한 코카인 35kg(1,050억원) 적발

<압수물: 밀반입 코카인 35kg>





사례8 (해양경찰청)

○ ’20.3.~’21.3. OO습지생태공원, OO어린이집 내에서 대마를 재배·매매·소지·흡연 및 필로폰 등 매매·소지·투약자 등 19명 검거

<압수물: 대마 약 260g>





사례9 (식품의약품안전처)

○ ’21.3. 환자가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6개 의원을 돌아다니며 펜타닐 패치(50, 100㎍/h)를 134회에 걸쳐 1,227매, 약 3,681일분을 처방받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병의원 및 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